



행복한 공동체를 이끄는 제자훈련 목회자

제자훈련의 성패는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나에 의해 결정된다. 한 교회에 제자훈련 목회가 뿌리를 내려 잘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담임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나에 의해 결정된다. CAL세미나를 이수하는 것만으로 제자훈련 지도자가 되고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목회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부산교회를 찾았다. 신부산교회와 조정희 목사는 이미 <디사이플>에서 제자훈련으로 교회 분열의 아픔을 딛고 칭찬받는 교회 현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건강한 교회로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09년 7월호). 그때는 분열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접목해 나갔느냐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조정희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살펴보려 한다.



조정희 목사는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육군 군목으로 파송 받아
노도포병교회에서 사역했다.
그 후 미시간 칼빈대학교(Th.M.)를
졸업하고, 칼라마주 한인교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현재 신부산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변화의 열망을 지닌 목회자

조정희牧사는 울산 대영교회 원로목사인 조성국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가 익숙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네 참 못된 사람들, 특히 목사인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게 신앙일까를 늘 고민했다.

“아버지는 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사실 아버지는 성자라고 볼릴 정도로 인격자였고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셨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 제자훈련에 대한 책들을 많이 찾아 읽었다. 제자훈련을 받거나 실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자훈련에 관한 여러 책을 통해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인격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서 부임했을 때, 체계화된 제자훈련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먼저 자신을 오픈하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자 그들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부터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고, 그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 대신 유학을 떠났다. 그렇게 미시간 칼빈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시카고에서 열린 코스타 강사로 온 오정현 목사를 만

났다. 이를 계기로 남가주사랑의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해 제자훈련을 경험하게 됐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새가족 한 분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돌봐준 순장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았던 장로님이 ‘저분이 말하는 순장이 바로 내 순원이었다’며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키운 순원이 순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을 바칠만한 사역임을 깨달았죠.”

신부산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 목사의 이 소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심방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혜숙 권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니까 신앙관이 달라졌어요. 훈련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도 바뀌고, 내 정체성도 바뀌고,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받기보다 주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조 권사뿐 아니라 신부산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평신도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단어는 ‘삶의 변화’였다. 아직도 조정희 목사의 마음에는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일념이 가득 차 보였다. 분열을 경험하며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10년 만에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담임목사가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무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모범을 보여주는 목회자

조정희 목사는 제자반 첫 시간에 반드시 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이것이다. “제가 1년 후에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잘 봐 주십시오.” 제자훈련은 단지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자 자신도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당신들의 배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한다. 훈련생들이 변화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말이다. 삶의 변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 배우자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면 참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목사들도 제자반 첫 시간에 이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훈련생의 가정 안에서 확인되는 변화를 중요하게 여겨서인지, 신부산교회의 제자훈련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제자훈련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다루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목회자 자신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부산교회의 제자훈련에서는 이런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조정희 목사는 화목한 가정을 이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슬하에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지만, 두 명의 아들을 입양하기도 했다. 조 목사는 입양하면서 제자훈련과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한다. 친자녀인 딸과 아들은 대학생이고, 입양한 두 아들은 초등학생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퍼져서 여섯 가정이 입양을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입양하는 가정이 생겼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에서 사람을 돌보는 것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그는 성도들에게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가정생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목사의 체질이 제자훈련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이 체질화돼야 합니다. 이걸 조직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광인론, 교회론, 제자도가 하나로 꿰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녹아나서 훈련생들이 보기에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소그룹을 인도하고 숙제는 어떻게 내주고 하는 방법론만 가지고는 제자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이런 삶은 평신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공경숙 권사는 이렇게 말한다. “훈련을 받다 보면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따로 이야기는 안 하셔도 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됐죠. 또 목사님을 보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사모님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고 싶은 거죠.”

남희자 권사도 훈련을 받을 때 “교회 목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명뿐”이라고 했던 조 목사의 말을 전하며 그만큼 자신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내는 저 혼자밖에 못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유장희 장로는 조정희 목사를 “말씀에 충실하고 삶도 그와 같은 분”으로 평가한다. 유 장로는 “제게 제자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적용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는 소리가 들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르침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교인을 제자 삼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힘쓰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훈련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삶에 적용했고, 그것이 저의 나약한 신앙을 강하게 바꿨습니다”라고 전했다.

결국 제자훈련이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훈련생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도자 자신이 변화되는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코 현실화되지 못한다. 훈련생들이 훈련 교역자의 삶을 인정하게 될 때에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비교적 평범하지만 훈련자의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벌써 10년 전 이야기가 됐지만, 신부산교회는 성도들 간의 고소와 고발, 분열, 재정 문제 등으로 시끄러웠던 교회다. 그런데 조정희 목사는 부임 후에 성도들을 만나서 과거의 상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

조 목사의 접근법은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2004년 4월에 부임한 조정희 목사는 8월부터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2년간, 99회에 걸쳐 진행했다. A4 용지에 뾰뾰하게 인쇄된 설교 노트 바인더의 두께가 백과사전만 하다.

“고린도전서를 선택한 건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꼭 고린도교회 같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랬다. 분열과 고소, 고발로 상처 입은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교회와 똑같았다. 그러나 조정희 목사는 그런 이유로 고린도전서를 선택하기는 했어도, 설교의 출발을 그 교회의 상황에 두지 않았다.

“설교의 출발을 컨텍스트에 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본문이 출발점이 되고, 이 본문이 1차 수신자, 즉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컨텍스트에서 출발하면, 어쩔 수 없이 목사의 개인적 입장, 정치색, 문화관 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중도 설교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한 책을 선택했으면 그 본문의 논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설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의적절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년의 사역 동안, 조정희 목사는 성경 중 한 권을 택해 그것을 꾸준히 강해하는 스타일을 고집했다. 교인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려는 질문에, 처음에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성도들도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다. 조 목사는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이 강해 설교를 했을 때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돼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조 목사의 부임 당시 장로로서 1기 제자 훈련을 마친 이춘수 장로는 조정희 목사가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끊고 일주일간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 설교에서 반복돼 선포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단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다고 말한다.

조 목사의 말씀 사역은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매주 준비한 강해 설교를 기반으로 직접 다락방 교재를 제작한다. “주일 설교 원고를 토요일에 영상실에 넘기고, 그것을 기초로 다락방 교재를 만들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주일 3부 예배까지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다락방 교재를 손을 봐서 인쇄하고, 그것으로 주일 오후에 순장들이 한 시간 정도 다락방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순원들에게는 순장들이 미리 전달하기도 하고요.”

다락방 교재를 주일 설교와 연결하면, 순장들이 주체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목사의 설교에 의존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도구가 아닌 말씀으로 전체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주해와 적용의 원칙을 지켜나간 것이, 교회의 상처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신부산교회가 주위로부터 주목 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한 원동력이었다.



들었다고 한다. 그가 보기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한다면서 너무 많은 행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제 눈에는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죠. 이런 행사들이 적어야 제자훈련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조 목사의 마음이 뒤바뀌는 계기가 있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교역자모임 시간에 오정현 목사님이 껌데기를 배우지 말고 본질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 철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에야 이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거죠.”

조정희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사역을 통해 감성적이고 세련된 행사들을 좋은 도구로 삼으면서도 무엇보다 제자훈련에 집중력을 실을 수 있어야 함을 배웠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직접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설교부터 다락방 교재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교재 내용과 예배 때 듣는 설교에 일관성을 느끼게 되고, 일관된 가치와 철학이 전달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할 때 주일 설교가 더욱 귀에 들어온다는 고백을 한다.

변화의 원동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말로 아무리 권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조정희 목사는 설교단에서 교회 현안을 다루며 지휘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히 주해와 적용의 원칙을 지켜나간 것이, 교회의 상처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신부산교회가 주위로부터 주목 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한 원동력이었다.

본질에 집중하는 목회자

조정희 목사가 제자훈련 사역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부터이지만, 처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몇 달간은 비판적인 마음이

다고 한다. 조 목사는 신부산교회에 부임해 제자훈련을 접목할 때 본질에 집중해야 함을 잊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제자훈련은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각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각 사람이 서로 다른데 봉어빵 찍어내듯 똑같이 찍어낼 수는 없지요. 이진 자녀 양육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공교육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정희 목사는 제자훈련의 본질이 지식 전달이나 기능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형해 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 부임했을 때는 부교역자 4명에게 CAL세미나를 수료하게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했다. 이후에는 신임 교역자들이 들어오면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반에 들어와, 보조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체험한 후 제자훈련을 인도하도록 했다.

“제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해 보지 못하고 CAL세미나만 수료한 상태였다면 제자훈련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제자훈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CAL세미나 받은 것만으로는 훈련을 진행 못하거든요. 과제물 점검, 큐티 나눔 등을 다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는 원칙은 교회의 자산과 재정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신부산교회는 조정희 목사가 부임할 당시에 상당한 은행 빚을 지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빚을 갚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목사는 “저는 빚 갚으려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역을 놓아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그의 관심은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세우는 것이었고, 그 일에 전력했다. 물론 최대한 교회 살림을 절약하며 빚도 갚아나갔다. 하지만 빚을 갚느라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빚도 많이 갚았는데, 이 앞에 빌라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빌라가 들어서면 교회 입장에서 곤란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땅을 다시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말도 많았죠. 하지만 교회가 빚을 갚느라고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안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다시 내서 그 땅을 사고 주차장을 늘렸다. 그 주차장은 구청과 협의해 주중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자 등록을 받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개방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만이 아니다. 교회 카페, 어린이 놀이 시설을 모두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본당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개방한다.

“전에 신용협동조합 총회 장소를 물색한다기에 저희 본당에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발표회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요. 카페도 개방하는데 거기서 나오

조정희 목사는 처음 부임했을 때 부교역자 4명에게 CAL세미나를 수료하게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했다. 이후에는 신임 교역자들이 들어오면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반에 들어와, 보조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체험한 후 제자훈련을 인도하도록 했다.



는 수익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지역 사회를 위해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워낙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

람이라고 강조를 해서 그런지, 오히려 교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니까 반대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가서는 안 되는 모임이 아니라면, 예배당에서 그 모임이 이뤄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목사가 자기 아이 유치원 발표회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흠이 아니라면, 교회 본당에서 유치원 발표회가 열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실 저도 빚을 빨리 갚고 싶습니다. 부유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 못하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죠.”

조정희 목사가 본질에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직분자 선출에서도 나타난다. 전통 교회 대부분이 그렇듯이 조목사의 부임 초기에 성도들의 큰 관심사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출이었다. 그러나 조목사는 부임한 후 6년 동안 장로를 안 세웠다. 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직분자를 선출하자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목사



는 제자훈련을 받고 그 철학을 이해한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렇게 그가 곳곳이 밀고 나가고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섬김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한다.

조 목사는 “봉사하는 것보다는 훈련받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하고,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각 사람을 섬기고 각 사람을 권하는 철학 위에 세워져야 하며, 각 성도는 예수님게로 부름 받은 사람이며 또한 보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돼야 한다”는 철학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한,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가지고 양적 성장의 드라이브를 거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부임한 지 약 5년 만에 출석인원이 400명에서 800명으로 두 배가 늘어났지만, 조 목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천 명 이천 명 되면, 장로님들이 두 배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노회 가서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고 자랑할 때나 잠깐 좋을지 몰라도,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이춘수 장로는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은 무조건 해야 한

조 목사는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각 성도는 예수님게로 부름 받은 사람이며 또한 보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돼야 한다”는 철학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고 말하며, 제자훈련의 가장 큰 유익으로 교회의 권위주의와 물량주의가 사라진 것을 든다.

제자훈련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니까 본당에 장로석이 사라지고, 당회실이 회의실로 개칭돼 모든 성도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모든 성도가 장로들과 스스럼없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섬기고, 몇 명 모였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이란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목회다. 제자훈련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제자훈련이 교인들의 머리만 키운다는

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만들 뿐이라든가,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든가, 목사의 하수인을 만든다는 식의 모든 비판이 사실무근이 되고 만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과 제자도에 입각해 본질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성이 살아난다는 증거를 신부산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낙심하지 않는 목회자

조정희 목사는 신부산교회 부임 초기를 회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전통 교회가 해 오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다 감당하면서도 제자훈련을 접목하기 위해 새가족훈련, 양육과정을 인도하고, 강해 설교를 할 뿐 아니라 다락방 교재를 집필하고 제자훈련까지 인도해야 했으니 몸이 남아날 지경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5기까지는 제자반을 직접 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했느냐, 아닙니다. 그중에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받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힘들게 제자훈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는 목회자는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기도 한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받고도 제자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제자훈련 받았다는 사람이 저런다”는 비난조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 “훈련받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 때문에 제자훈련 사역 전부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조 목사는 이렇게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제자훈련 한다는 나는 과연 얼마나 기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제자훈련 시킨다는 목회자도 죄인이고 훈련생도 죄인이다. 훈련받았다고 다 천사처럼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 비난하는 사람도 결국 훈련을 못 받아서 하는 말일 뿐이다.’ 조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붙들었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시도하려는 목회자는 이런 영적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 하나만 해달라는 요청에, 조 목사는 “적어도 훈련시킨 사람이 순장이 돼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될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자훈련의 열매는 결국 순장이 돼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위에 제자훈련을 2~3년 정도 하고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이 사역의 장까지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최소한 순장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세워지고 그들이 사역 현

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부산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훈련생을 뽑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훈련이 약간 정체기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과구를 마련해 보려는 경우도 있지만, 조 목사는 “신부산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더 열심히, 원래 하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할 뿐입니다”라고 못 박는다. 훈련생을 못 뽑는다면 한 해 정도 쉬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결코 훼손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제자훈련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바로 눈앞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할 사역이 아니다. 실로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한 제자반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만두고 싶다고 느낄만한 어려운 반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모든 경험 가운데 제자훈련 목회자에게는 절대 낙심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독심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의 열매는 그런 목회자가 맞출 수 있다.

신부산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본 결과, 10여 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상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009년의 신부산교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 2014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신부산교회가 ‘분쟁의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로 거듭났음을 의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목회 철학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고 행복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자라면,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의 모범을 진지하게 따라 볼 것을 제안한다.  (박희원 목사)

